



주 제:	“주님을 만남”	“연중 제 31 주일 (다해)”	2007년 11월 4일
복음 묵상:	루카 19,1-10	지혜 11,22-12,2	2 테살 1,11-2,2

인간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어갑니다.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죽어가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죽음은 미지의 영역이기에 인간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으로 남아있고, 죽음이 있기에 인간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였는지 세관장이며 부자였던 자캐오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는지도 모릅니다. 군중에 가려 또 키가 작아 예수를 볼 수 없었던 자캐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가치 있게 보이려 했지만 정작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했던 자캐오, ‘하고 싶은 일’ 보다는 ‘해야만 하는 일’ 에 사로잡혀 돈과 지위, 그리고 그럴싸한 직업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던 자캐오, 그는 어쩌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를 원했고, 자기 자신과 더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자캐오는 ‘진정한 나’ 를 찾기 위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두려움과 후회와 싸우고, 의미와 사랑과 용기를 추구하고 상처와 상실,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부정적인 면을 인정하고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역할을 벗어 던집니다. 모든 순간을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가면을 벗어 버리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 진솔한 불평을 늘어놓으며 진정한 자신이 되는 중간 지점을 찾아갑니다. 그런 자캐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캐오야, 빨리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이 말씀이 자캐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온 자캐오는 지난 삶을 반성하고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재산을 주님 앞에 내려 놓습니다 (인천 지성용 신부님 강론 중에서)

1. 성가대 소식

- **성탄 미사곡은 본당 웹 성가 연습방에 NWC 파일로 올려놓았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MP3 파일을 구하지 못해 CD 를 만들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여 주십시오.
- **윤안도 요셉 형제님**의 부친이 위급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한국을 다녀오셨고, 현재 LA 에 일이 있어 당분간 못 오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의 병화는 다소 호전되었다고 하나 쾌차할 수 있도록 기도 중에 주님의 자비를 청해 주십시오.
- **이흥진 예레사 자매님, 전란이 막달레나 자매님** 동부 여행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 **조 율리안나 자매님** 약 2개월 반의 예정으로 한국 방문중에 있습니다. 여행중에 건강히 유쾌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11월 위령성월을 맞아 교회에서 신자에게 주는 특전”

11월 1일부터 11월 8일 까지 묘지를 방문하여 기도하면, 하루에 한 사람에게 전대사를 허락하십니다. 이 전대사는 죽은 이에게만 허락하시는데, 가족에게, 이웃에게, 가장 불쌍한 연옥 영혼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8일 동안 8번 얻을 수 있습니다.

대사:

1. 대사는 용서하다, 탕척하다는 뜻이니, 교황이나 혹은 주교가 성교회 보고에서 은사를 퍼내어 교우들의 죄보속을 면하여 주는 것입니다.
2. 죄보속 또는 죄의 잠벌이라 함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 마땅히 받을 형벌이 두 가지 있으니, 첫째는 영벌이요 둘째는 잠벌입니다.. 범죄후 고해성사를 받거나 혹은 상등통회를 받으면 죄의 악은 사해지나, 잠벌은 남아 있어서, 현세에서나 혹은 연옥에서 기워 갚아야 하니, 지금 말하는 대사는 이 잠벌을 면하기 위하여 받는 것입니다.
3. 대사를 얻는 규칙:
 - 대사를 얻으려면 세가지 규칙을 지킬 것이니,
 - 은총지위에 있어야 하니, 대죄가 있으면 고해성사를 받거나 상등통회* 를 받할 것이요,
 - 대사를 얻을 뜻을 두고, 교황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주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친다.



예수께서 예리고에 이르러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거기에 자캐오라는 돈 많은 세관장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키가 작아서 군중에 가리워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길을 앞질러 달려 가서 길가에 있는 들무화과나무 위에 올라 갔다. 예수께서 그 곳을 지나시다가 그를 쳐다보시며 "자캐오야, 어서 내려 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캐오는 이 말씀을 듣고 얼른 나무에서 내려 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 가 묵는구나!" 하며 못마땅해 하였다. 그러자 자캐오는 일어서서 "주님, 저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여 먹은 것이 있다면 그 네 갑절은 갚아 주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자캐오를 보시며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1분 명상

“

영혼의 빛



먼저 눈을 감고 몸의 긴장을 풀라.
 자신의 육체를 영혼의 빛이 감싸고 있다고 상상하라.
 그런 다음 숨을 내쉬면서 그 빛을 그대의 몸 안으로
 불러들이고, 호흡을 통해 몸 구석구석으로 가져가라.
 가장 오래된 명상법 중 하나는 빛이 자신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속안에 있는 어둠과 부정적인
 것들을 바깥으로 내놓는 것이다.

- 존 오도나휴의 《영혼의 동반자》 중에서 -

* 영혼의 빛을 잃으면

자기 마음 안이 늘 어둡습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이 어둡고
 얼굴이 어두우면 삶 전체가 어두워집니다.
 명상은 파리를 틀고 앉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영혼의 빛을 불러들일 수 있으면
 그것이 곧 명상입니다. 빛이 내 안에 스며들면
 어둠은 밝음으로, 불만은 자족으로,
 원망은 감사로 바뀝니다.
 삶이 밝아집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Mt.5.3)